

<특 집 : 독서진흥 환경개선 및 진흥정책 모색>

국민독서 진흥정책 추진 방향



이 만 수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mslee@daejin.ac.kr

1. 독서진흥정책의 필요성

교육인적자원부의 독서이력서 제도 도입, 민간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와 작은 도서관 운동, 국회 국정감사 지적, 독서업무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의 이관, 주 40시간 근무, 학교 교육에서의 독서생활화, 민간 기업의 독서경영 확대, 독서관련 단체의 독서진흥 제기,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문화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욕구 충족 등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오늘날 독서환경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부보다는 민간부분에서의 변화를 지적하고 싶다. MBC 문화방송의 느낌표 프로그램에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의 독서경영은 이랜드, 동양기전, 교보문고, 삼성 SDS, 현대오일뱅크 등에서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독서경영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2. 독서진흥 정책의 현황 및 한계점

우리나라의 독서진흥정책의 현황에서 문제점(한계점)은 첫째, 국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독서진흥정책 미비, 둘째, 낮은 국민독서 지수, 셋째, 독서문화 공간 및 전문 독서문화프로그램의 부족, 넷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미비, 다섯째, 문화 소외 계층 독서환경 및 독서자료 부족 등 이다.

여러 문제점들 중 특히 국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독서진흥 정책이 없다는 것은 주목해볼 만하다.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중에서 독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전담 부서가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도 어려운 실정인데 전담 부서도, 전문가도 없이,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행사로 실시하는 전시 행정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동안 독서새물결운동('93), 전국민책읽기운동('99), 책사랑 달리기대회('02), 청소년책읽기사업('02), 전국지역간책릴레이행사('03), 다시 책이다('02), 북스타트 운동('06 서산), 아침 10분독서('06 대구),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03 서산, '04 부산), 독서교육지원시스템('05 부산) 등 독서관련 행사도 많이 추진되었으나 역시 지속적이지 못하였다.

다행히도 2004년 11월 국민 독서진흥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이제부터 전문가에 의해서 독서진흥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바로 이러한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공도서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나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도 부족하고, 1인당 장서도 낮은 수준이며, 자료의 최신성이 떨어진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관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사서를 보충하든지, 선진국에서 요즈음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동 시설을 설치하여 자유롭게 야간에 이용하게 하든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3. 독서진흥정책의 기본원칙 및 추진 방향

독서진흥정책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독서진흥을 위하여 국립도서관 내에 독서진흥 전담 부서를 두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독서진흥정책 추진 방향 중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초등, 중등, 고등, 대학에 이르기까지 독서교육 정책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독서정책 추진 전문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두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독서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중장기 독서진흥사업 추진 과제

책 읽는 정부 추진은 21세기 지식정보시대, 평생학습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부터, 공무원부터 지식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으로 신선한 아이디어이다.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독서영역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의 경쟁력을 높인 예가 많이 있다.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솔선하여 책 읽기 운동에 참여하게 하면 공무원 사회가 달라질 것이다. 공무원 연수 차원에서 독서대학을 만들어 수강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좋을 것이다. 독서왕 선발, 책 선물하기, 독서포럼, 독서클럽, 블로그/카페 활동, 포상, 독서휴가제 등은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에 「범국민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든지, 독서진흥 활동 담당 부서(담당자)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국 공공도서관이 독서진흥 사업을 주도하면서 다른 도서관 또는 민간부문 독서진흥 활동 지원하고 독서 프로그램 전담 직원 배치를 추진한다는 것도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강화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의하여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청소년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배양하고 창의력 함양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에서의 독서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 바람직하다.

독서캠페인 및 홍보 활동이 문제이다. 공공도서관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문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한다. 책과 도서관, 독서에 관련된 날들이 많이 있다. 4월 12일~4월 18일 도서관 주간,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5월 첫째 주 어린이 독서주간, 매년 6월 초 서울국제도서전, 9월 독서의 달, 10월 11일 책의 날이다. 그런데 이런 날들을 잘 모른다. 신문, 방송도, 인터넷 즉 언론이 잘 취급해 주지 않는다. 학교 사서교사도 제대로 지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들도 잘 모르고, 교사도 마찬가지다.

대학생은 더 모른다. 교수도 마찬가지다. 물론 전공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도대체 잘 모른다. 사서, 사서교사, 독서 관련 단체에서는 반드시 지도하고 홍보해야 한다.

기타 밝힌 다른 추진 과제들은 좋은 과제로 권장할 만하다.

5. 독서진흥사업 협력체제 구축 방안

독서진흥사업 협력체제 구축 방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정부와 민간부문 협력 방안으로 독서진흥재단 및 진흥기금 설립 등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진흥기금 설립은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금이 통폐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독서진흥 관련 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좋은 아이디어이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자발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진흥활동을 기획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독서문화 진흥 정도를 반영한다든가, '책 읽는 지자체' 상 제정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책 읽는 도시' 사업 추진 및 인센티브를 준다하고 사례를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들었는데 이것은 위험하다. 창원시의 사례를 보면 작은도서관, 소규모 도서관에 시의 예산을 줄 테니 도서관명칭을 변경하라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명칭을 사회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관 등으로 바꾸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바로 도서관 명칭 변경에 국가 예산을 쓴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도서관 명칭 변경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 담당 책임 기관이 된 국립중앙도서관이 훌륭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전문가로부터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 참고하여 이번에 발표한 「책 읽는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독서 진흥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계획이 명실공히 한국의 독서진흥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끝)